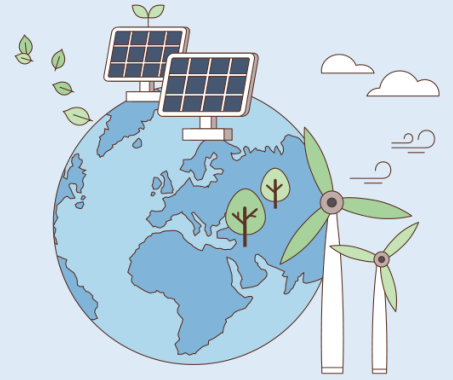


ESG

Weekly Focus



Economist/Asset Allocation 방인성_02)368-6145_isbang@eugenefn.com

E (Environment)

주간 국내 기사

- '아무도 못 기본' 생태계 열린다 *비즈니스위치*
- "어메니티부터 친환경으로"...'그린 패키지' 힘주는 호텔업계 *아시아경제*
- 수소, 자율운항...新기술로 K조선업 또 도약 *헤럴드경제*
- "버려진 페트병이 재킷으로"...MZ세대 노린 '변신' *이데일리*
- '수소차 확대'·'배터리 내제화'...완성차업계, 탄소중립 경쟁 심화 *아시아경제*
- 美 액상형 '가짜계란' 먹어보니"...계란과 맛 다르지만 활용도 높아" *머니투데이*
- 전기차 폐차하면 배터리는 어디로? 벌써 '귀한 몸' *헤럴드경제*
- 내년 생산 중단 동해가스전...탄소 저장시설로 재탄생 *뉴스1*
- 귀에 '씩' 손목에 '착'...웨어블기기 들어가는 배터리리는? *이데일리*

G (Governance)

주간 국내 기사

- 80년대생 현대차 3세 경기선-정남이-정경선... 신사업-벤처 투자로 보폭 확대 *조선비즈*
- 김슬아 켈리 대표 "전국 서비스 박차...2년내 흑자전환 자신" *머니투데이*
- 몸값 뛰는 '마이크로바이옴'...바이오업계 M&A 재편 본격화 *뉴스1*
- 한진중 인수완료' 동부건설, 시너지효과 본격화 전망 *헤럴드경제*
- 늦어지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연내 가능할까 *뉴스1*
- 흥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310억 규모 소송...제3자 매각 진행" *서울경제*
- 상장 앞둔 SM상선, 노선-신조선 강화...기업가치 높인다 *아시아경제*
- 쌍용차 새 주인은...이엘비엔티 VS 에디슨모터스 *한국경제TV*
- 미래 먹거리로 '수소' 낙점한 코오롱 이규호 부사장, 경영 전면에 서다 *환경비즈니스*

S (Social)

주간 국내 기사

- 최근 7년 산업재해 경제적손실 159조 추정 *파이낸셜뉴스*
- 산업기술-영업비밀 5년간 527건 유출... 중소기업 피해 482건 *세계일보*
- "추락에 끼임도"...추석 연휴 전후 '산재 사망사고' 급증 이유는 *뉴스1*
- 스타트업과 ESG 논의하며 동반성장 이끄는 기업들 *환경비즈니스*
- '골목상권' 손 댄 카카오...배민쿠팡은 다를까? *머니투데이*
- 공경위, 10대 재벌 과징금 1500억원...롯데 1위-현대차 2위 *매일경제*
- "연봉 1000만원 올려라"... 삼성전자 노사, 임금교섭 쟁점은? *머니S*
-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목소리 커지지만...정부는 '신중' *뉴스1*
- 인재 확보 위해 美 향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최고의 직장 만들겠다" *디지털타임스*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주간 국내 기사

- 노벨 경제학상 크레이머 교수, 디지털·녹색 경제 전환 현주소 진단 *뉴스1*
- 방탄소년단 "우리는 '로스트' 아닌 '웰컴 제너레이션'" *파이낸셜뉴스*
- 투자업계 큰 손들 전문인력 채용 나서지만... *서울경제*
- "ESG 투자, 수익률에 대한 의구심 사라지는 중" *한국경제*
- 내달부터 개편되는 '사모펀드' 제도...뭐가 달라지나 *이데일리*
- ESG바람 타고...탄소배출권 ETF 쏟아진다 *매일경제*
- 허리케인 아이다 여파에 허리 휘는 美 보험사 *한국경제*
- '사상최대' 4조원 규모 넘었다...이 펀드'에 돈 몰리는 까닭은 *머니투데이*
- 정부, 1300억원대 기금 운용손실 낸 위탁운용사 소송-제재 검토 *조선비즈*

ESG FOCUS UPDATES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해외사례 및 시사점 연구

- 대한상공회의소 21.09.13

E

-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배출권 가격은 한때 5배(2015년 1월: 톤당 8,640원 → 2020년 4월 42,500원)까지 상승. 특히 2019년 9월 심리적 상한선이었던 3만원을 돌파하며 급격히 상승. 2020년 4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급등락을 반복하며 2021년 6월 10,500원까지 하락한 바 있음
- 정부는 배출권 시장가격 급등락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 보유 배출권 공급, 기업의 잉여배출권 이월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안정화 정책은 가격 또는 거래량 등락 상황에 따른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사후적으로 정책 시행 여부와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함
- 미국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가격범위를 사전에 설정하고 있음. 하한 가격의 경우 2012년 10달러에서 시작하여 매년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5%씩 인상함
- 상한 가격은 2013년부터 3단계로 40, 45, 50달러로 설정하였으며, 매년 5%씩 인상함. 사전에 단계별 배출권 판매물량을 결정해두고, 시장가격이 1단계 상한가격에 도달시 1단계 물량을 판매, 추가 상승 시 2, 3단계를 진행함
- 그 결과, 정부가 정한 판매 하한가격이 배출권 시장가격의 기준으로 작용함. 상한가격은 '심리적 안정장치' 역할을 함
- 뉴질랜드의 경우 2009년부터 기업에게 '상한가격옵션'을 제공함. 기업이 상한가격옵션을 선택할 시 배출권 시장가격과 관계없이 상한가격으로 세금처럼 배출권을 정산할 수 있음. 특히, 중소기업들은 불확실한 배출권 시장보다 상한가격옵션을 선호함
- 유럽(EU)의 경우 배출권 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 여유분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을 채택함. 단,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배출권 가격은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결정되도록 함. 2019년에서 2030년까지 시장의 배출권 여유분을 하한 4억톤 ~ 상한 8.33억톤으로 유지할 계획임
- 시장의 배출권 여유분이 하한 4억톤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 보유 배출권을 공급하고 상한 8.33억톤 이상으로 올라가면 차기 할당량을 삭감하는 식임
- 상·하한 가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힘들기에, 배출권 시장 여유분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유럽 방식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내시장의 배출권 여유분이 부족한 만큼 적정 유통량 기준 수립이 필요함
- 또한, 규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뉴질랜드 방식'의 상한가격 옵션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SG 등급 평가와 데이터 제공에 관한 제도개선 논의 현황

- KDB 미래전략연구소 21.09.14

A

- 최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지속가능성 TF 구성과 IFRS의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 설립, EU 지속가능금융패키지, ICMA의 ESG 관련 원칙 및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 ESG 관련 제도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ESG등급/데이터 제공회사는 전세계 200여개 이상이며, 2021년 현재 10억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2025년까지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ESG등급/데이터시장은 소수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흡수합병(자회사 형태로 유지)을 통해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ESG등급/데이터 회사들은 특화하거나,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임
-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공공기관 등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은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등급과 데이터를 활용 중이나, 기관투자자들은 ESG등급/데이터 산출방법의 투명성 부족으로, 등급/데이터 자체보다 데이터회사를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ESG관련 분석을 위한 내부평가등급이 있으나, 중소기업은 능력, 비용 등으로 불가한 상황임. ESG 기초데이터 신뢰성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공시 표준화를 통한 개선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
- 기업들과 ESG등급/데이터 회사간 소통은 통상 데이터 수집, 평가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공표 직전단계에서는 제한적임
- 기업들은 설문 대응의 시간 소비, 불명확한 스케줄, 모호한 질문, 데이터 미제공 시 불이익, 공표직전 검토 부족 등 문제를 제기 중임
- IOSCO는 ESG등급/데이터 시장내 기업, 정보제공자, 사용자 등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10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함: 1) ESG등급/데이터회사의 데이터 품질 유지, 2) 신의성실 의무, 3) 투명성 제고, 4) 기밀 유지와 이해상충방지, 5) 피평가회사들과의 데이터 수집절차 관련 등
- 국내 ESG등급/데이터 산업 역시 초기단계로, 법, 규정 등 규제체계 마련을 통해 자료의 일관성과 방법론상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함. 중소기업 운용사의 데이터 외부 의존도 완화와 비용 상승에 대비하여 업계내 ESG관련 데이터 축적을 위한 인프라 마련이 요구됨

탄소배출 제로에 기여할 수 있는 수소내연기관의 잠재력

- 포스코경영연구원 21.09.15

E

- 수송차량의 탄소배출 제로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4가지 기술로는, 배터리전기자동차(BEVs), 수소연료전지전기자동차(FCEVs), 수소내연기관(H2-ICEs), 바이오/합성연료내연기관을 들 수 있음
- 하이브리드 및 가스 엔진은 주기적으로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환 기술이지만 자체로는 배기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할 수 없음
- 고효율의 BEV는 고가의 배터리를 수반하는 반면, 효율이 낮은 수소 및 바이오/합성연료는 오늘날의 디젤엔진과 대체로 동일한 단순 내연기관에서 연소. 따라서 총보유비용(TCO)을 최소화하는 초기 자본 비용과 지속적인 연료 소비 간의 최적 균형은 차량 유형과 사용 환경에 따라 크게 다름
- 예를 들어 차량 크기와 중량에 따라 필요한 파워트레인 및 연료 소비량이 결정됨. 전기, 수소 및 바이오 연료의 가용성과 비용, 그리고 해당 충전 또는 급유 인프라를 포함한 지역 시장의 조건이 반영되어야 함
- 효율과 자본지출/비용 외에도, 파워트레인의 TCO를 형성하는 데 추가적인 요인이 작용함. 배터리는 충전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가동시간이 감소하여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사용 환경에서는 TCO에 영향을 줌. 배터리는 무겁고 수소연료전지와 H2-ICE는 큰 탱크가 필요함
- 배터리와 수소연료전지 차량은 놀라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혹독한 환경에 필요한 매우 높은 전력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채굴 트럭은 수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24시간 가동에 공기 중의 먼지 뿐 아니라 극심한 진동과 열 발생에 노출됨
- 내연기관은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 왔으며, 디젤에서 수소로 전환하는 것은 추가적인 기술혁신으로 엔진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제거하는 간단한 접근 방법임
- 수소내연기관에 대한 한 가지 우려는 수소연료전지와와의 경쟁임. 그러나 두 기술이 경쟁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두 기술 모두 수소의 비중을 높이고 상호보완적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음. 두 파워트레인은 대부분 동일한 인프라를 요구하기 때문임
- 글로벌 운송부문에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는 것은 엄청난 과제이지만, H2-ICE는 FCEV와 BEV에 보완 솔루션을 제공함. H2-ICE의 장점은 공간 요구 사항 감소, BEV 트럭에 비해 짧은 급유 시간, 열 및 진동에 대한 강한 내구성 등임
- 차량 OEM, 엔진 공급업체,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 및 H2-ICE 신생업체를 포함한 여러 업체들은 이미 제로 배출 솔루션 오퍼링의 일환으로 H2-ICE를 조사 중임
- 파워 트레인의 미래 포트폴리오는 복잡하겠지만, H2-ICE를 추가할 필요 있음
- 수소내연기관자동차에 대한 진전이 거의 없다가 올해 4월 토요타자동차가 수소내연기관 개발에 착수하였다는 발표를 한 상황임. 토요타자동차의 행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KOTRA 2020 글로벌 CSR 성과보고서

- KOTRA 21.09.16

A

- KOTRA는 다양한 CSR 사업을 통해 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여 국내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우수 사례: 코메가와 KOTRA 타이베이 무역관에서 현지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인 들깨 기름을 기부하는 기증식을 개최함
-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CSR 기부 행사에는 약 160명이 참석하였고, 제품 기부와 함께 제품을 활용한 건강 요리 시식회도 추진함. 해당 행사는 현지 언론에 세 차례 보도되었고, CSR 마케팅 효과를 통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수입량이 증가함
- 우수 사례: 원더트렌드는 2019년 프리미엄 치약 신제품 출시 이후 SNS와 연예인 광고 마케팅을 통해 한국 내 인지도를 구축함. 이후 중국 시장 내 홍보와 시장 확대를 기획하고 있었음. 화이트닝과 시린 이를 케어하는 기능성 치약 제품 본연의 특징을 담은 브랜드 홍보를 위해 원더트렌드는 KOTRA 현지 합작 치과법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CSR 사업에 참가
- 원더트렌드는 중국 소비자 대상으로 기능성 구강 제품 홍보의 수요를 확인하였고, 2년 연속 한중 합작 치과병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KOTRA 글로벌 CSR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
- 그 결과, 한국산 마스크팩 브랜드 J사 중국 총판 대리상이 CSR 사업에 소개된 원더트렌드의 프리미엄 치약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7월 중국, 대만, 캄보디아 등으로 첫 수출에 성공함
- 우수 사례: KOTRA는 2020년 코리아케어(Korea Care) 사업 신설로 국내 기업과 함께 세계 각국 재난 상황에 대한 구호 활동을 지원함
- 코리아케어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진단키트 50만 개, 마스크 40만 개, 손세정제 30만 개 등 방역물품 무상 조달 이후, 1,270만달러의 수출성고가 창출되었고, 1,500만달러 규모를 수주함

지속가능성보고 기준 표준화 논의 동향

- 지속성장이니셔티브 21.09.17

A

- IFRS 재단 이사회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단일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IFRS 지속가능성기준' 제정을 위해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설립에 착수함
- 하지만 당장 국제적 공시기준 표준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세계경제포럼과 4대 회계법인은 이해관계자 매트릭스(SCM)을 발표함
- SCM은 기존 글로벌 비재무정보 공시 표준들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연계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통합적 보고기준임
- WEF는 ISSB 설립의 기술적준비실무단에 속해 IFRS 지속가능성기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무단은 SCM의 지표들과 SCM에 대한 기업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5대 비재무정보 보고기준 제정기구 역시 통합적인 공시기준 제정을 위해 협업 중임
- 하지만 유럽연합과 미국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표준화 작업과 별개로 국내 규제를 자체적으로 제정 중임. 이에 대응해 지속가능성공시 기준 표준화를 지지하는 주요 비재무정보 보고기준 제정기구와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등은 미국, EU에 대해 빌딩블록(Building Block: 단일의 국제 표준과 자율적 규제 추가 병행) 방식을 제안 중임
- SCM 내 일부 신규지표를 제외한 대부분 지표는 비재무정보 보고기준 제정기구(GRI, SASB) 등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지표 중에서 선정됨
- SCM은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주는 책임감을 부과하기 위해 'Disclose or Explain' 방식을 적용함. 이를 통해 기업은 현재 판단하기에 중대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공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중대해질 가능성 있는 주제들에 대해 대비할 수 있음
- IBC 회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의 SCM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속가능성보고 후발기업 사이에서도 SCM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지속가능성보고 미성숙 기업에게는 통합적인 SCM이 지속가능성보고를 상대적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 역할을 함. SCM은 중소·중견기업에게도 접근성이 좋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국내 기업에게 SCM은 IFRS 지속가능성기준이 완성되기 전 지속가능성보고 기준 표준화를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됨

ESG 경영과 사업 포트폴리오

- 대한상공회의소 21.09.13

A

- 아직까지 많은 국내 기업들이 ESG와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별개의 전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 ESG 경영 활동만으로는 기업이 지속 성장을 유지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기업 경영진은 차질 잘못된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리스크가 큼
- 이는 최근 ESG 트렌드 변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시장 매력도와 사업 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임. 최근 S&P사가 분석한 S&P 500 Carbon Price Adjusted Index에 따르면 Carbon Price 반영 시 이미 30% 이상의 기업 Discount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ESG로 인해 내외부 사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검토된 사업의 매력도 관련 세부 항목들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세계적인 독일의 화학회사인 BASF는 자사 상품을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SV(Social Value) 창출 효과가 가장 우수한 그룹에 R&D 예산의 60%를 투자하고 있으며, 가장 성과가 낮은 그룹은 5년 내 SV 성과 창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철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기존 사업포트폴리오의 개선만으로 ESG 트렌드에 대응하기 어려울 경우 신사업 진출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재무적 관점의 EV(인수의 경우) 및 업의 시장 전망과 ESG 리스크 관점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사업 진출 의사결정이 필요함
- 영국의 British Petroleum은 최근 석유화학부문을 매각하고 친환경 전기 충전소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파나소닉은 친환경 경 스마트 시티 등 Eco Solution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 국내 ESG 선도 기업인 SK그룹 또한 Green, 첨단소재, 바이오, 디지털의 4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중임
- 일본 Itochu는 투자 대상 기업 Pool 선정 시, ESG 리스크와 재무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투자 진행 후 전략적 부합성 및 수익성 등을 평가하여 유지 또는 교체 결정을 결정함
-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수단이자 활동임. ESG 관련 지표 관리나 높은 평가 점수 획득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
- 국내 기업들은 ESG 기회와 리스크 요소들을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에 반영하여 재평가 및 이에 따른 과감한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함

UN SDGs 연계 ESG ETF

목표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HTEC ROBO Global R Healthcare Technology and Innovation ETF

- 글로벌 기업 중 의료 및 의료 기술로부터 매출의 일부를 창출하는 의료 기술 관련 기업 대상
- 진단, 실험실 자동화, 재생 의학, 데이터 및 분석, 원격 건강, 로봇 공학, 유전체학과 관련된 50~100개의 기업을 선정 및 스코어링
- 개별 종목의 고유한 점수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고 분기별로 점수 변동에 따라 리밸런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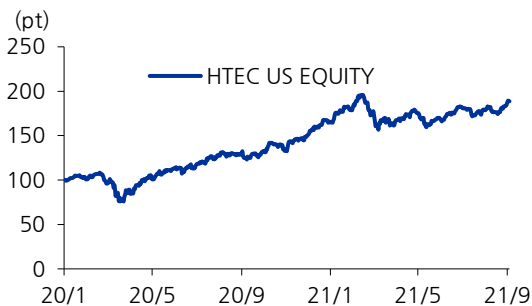
ETF 개요

티커	HTEC US EQUITY
상장일	2019-06-25
운용사명	Exchange-Traded Concepts ETFs/
총보수율(%)	0.68
기초지수	ROBO Global Healthcare Technology Index
가중 방식	Proprietary
주당 가격(달러)	47.90
보유종목 수	92
시가총액(백만달러)	241.9

시총/전략/지역 - / Blend / Global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24일 기준

주가 추이



기간	1W	1M	3M	YTD	Sharpe(% , 1Y)
수익률	-1.3	-0.3	1.0	9.6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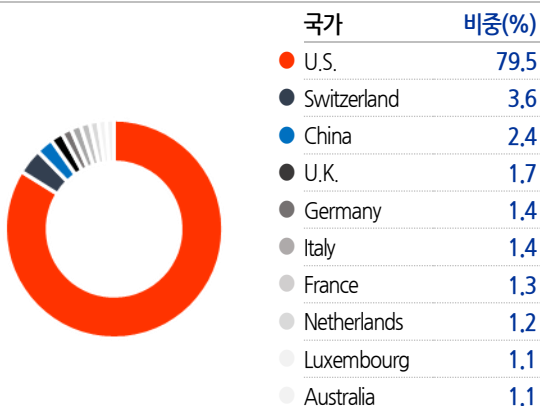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24일 기준
 주: 2019.12.31 증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TOP 10 보유 종목

티커	이름	시가총액 (백만달러)	비중 (%)
IRTC US	아이리듬 테크놀로지스	1,717	5.1
TMO US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239,899	4.8
DXCM US	덱스컴	54,251	4.7
VCYT US	베라사이트	3,463	4.7
CRL US	찰스 리버 래버러토리스	23,097	4.4
MRNA US	모더나	173,624	4.4
BSX US	보스턴 사이언티픽	63,646	3.1
NTRA US	나테라	11,078	3.0
PEN US	페넘브라	10,196	2.3
ISRG US	인튜이티브 서지컬	124,050	1.4
합계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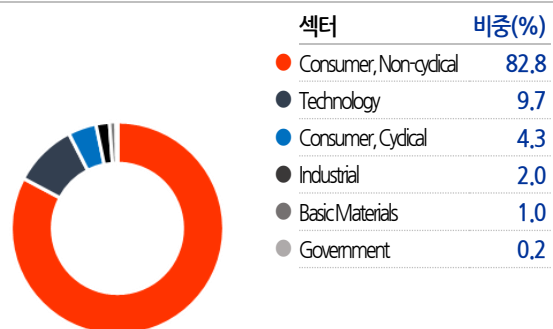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24일 기준

국가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24일 기준

섹터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24일 기준

목표 7.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CNRG

SPDR S&P Kensho Clean Power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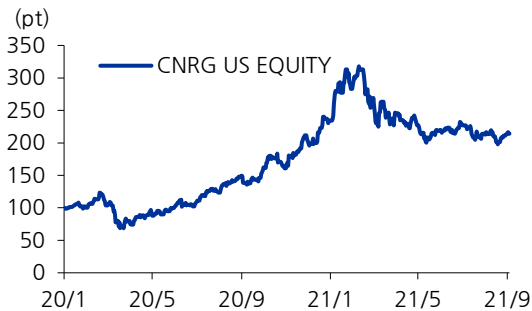
- 제품과 서비스가 청정에너지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 상장 기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음
- 기업 공시 자료 및 SEC 제출 문서 내 키워드 분석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기업 내 주요 사업 부문인지 여부에 따라 Core 또는 non-Core로 간주됨
- 초기에는 동일하게 가중치가 부여되며 Core 종목에 속할 경우 비중이 확대될 수 있음

ETF 개요

티커	CNRG US EQUITY
상장일	2018-10-23
운용사명	State Street ETF/USA
총보수율(%)	0.45
기초지수	S&P Kensho Clean Power Index
가중 방식	Basket
주당 가격(달러)	94.28
보유종목 수	45
시가총액(백만달러)	355.9
시총/전략/지역	Broad Market / Blend / Global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24일 기준

주가 추이



기간	1W	1M	3M	YTD	Sharpe(% , 1Y)
수익률	-1.9	-2.1	-7.1	-12.9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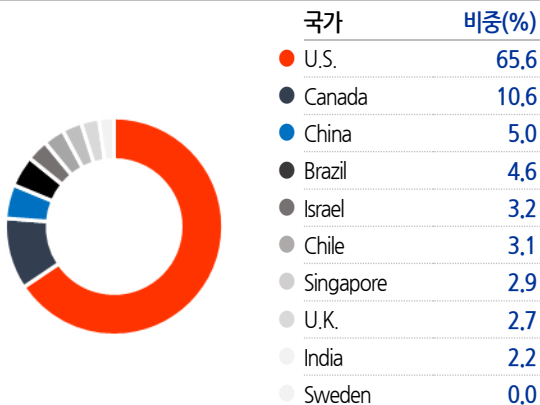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24일 기준
주: 2019.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TOP 10 보유 종목

티커	이름	시가총액 (백만달러)	비중 (%)
TSLA US	테슬라	775,759	3.6
FSLR US	퍼스트 솔라	9,691	3.3
SEDG US	솔라에지 테크놀로지스	14,393	3.2
ENPH US	인피이즈 에너지	20,686	3.1
NEE US	넥스트에라 에너지	158,314	3.1
ARRY US	Array Technologies Inc	2,318	3.0
ELP US	파라양인스지 에너지	3,607	3.0
NOVA US	Sunnova Energy	3,684	3.0
MAXN US	Maxeon Solar	838	2.9
JKS US	징코솔라 홀딩	1,981	2.9
합계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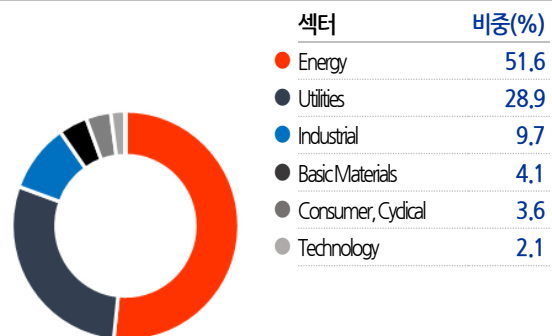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24일 기준

국가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24일 기준

섹터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24일 기준

목표 15.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복원 증진,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의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VEGN US Vegan Climate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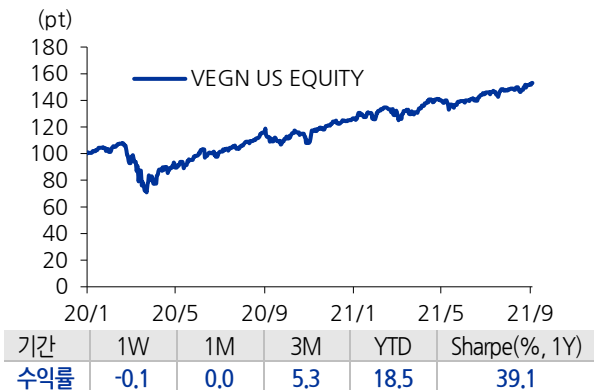
- 시총 상위 500개 미국 기업 중 매출의 2% 이상이 3개의 Pillar(동물, 환경, 인권) 내 규정된 부정적 행위와 관련된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종목 배제
- 동물 Pillar 내 금지 항목으로 동물 실험,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활용 등을 규정한 것이 특징적임
-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지수 비중을 결정하되 개별 종목 비중 제한(최대 5%)를 두고 있음

ETF 개요

티커	VEGN US EQUITY
상장일	2019-09-09
운용사명	ETF Series Solutions
총보수율(%)	0.6
기초지수	Beyond Advisors US Vegan Climate Index
가중 방식	Market Cap
주당 가격(달러)	40.93
보유종목 수	271
시가총액(백만달러)	65.5
시총/전략/지역	Large-cap / Blend / U.S.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24일 기준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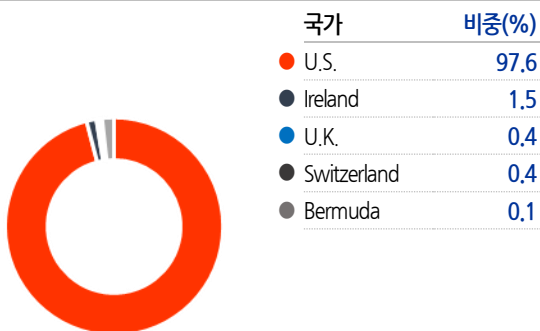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24일 기준
 주: 2019.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TOP 10 보유 종목

티커	이름	시가총액 (백만달러)	비중 (%)
NVDA US	엔비디아	552,025	5.2
MSFT US	마이크로소프트	2,249,583	5.0
TSLA US	테슬라	775,759	4.5
PYPL US	페이팔 홀딩스	326,788	3.6
V US	비자	508,809	3.4
UNH US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383,843	3.3
MA US	마스터카드	353,423	3.2
CMCSA US	컴캐스트	258,127	3.0
GOOGL US	알파벳	1,899,318	2.5
GOOG US	알파벳	1,899,318	2.5
합계			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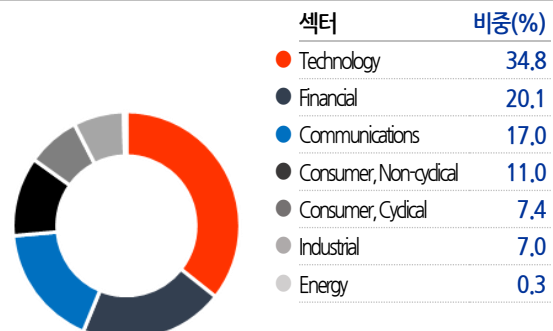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24일 기준

국가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24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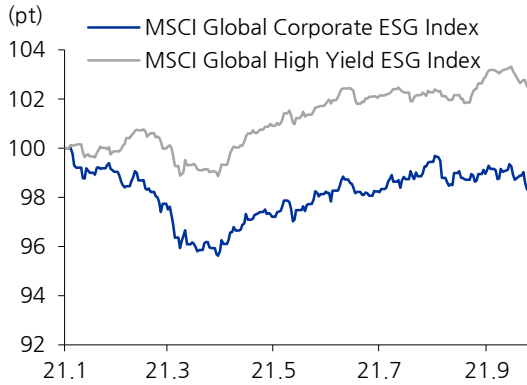
섹터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24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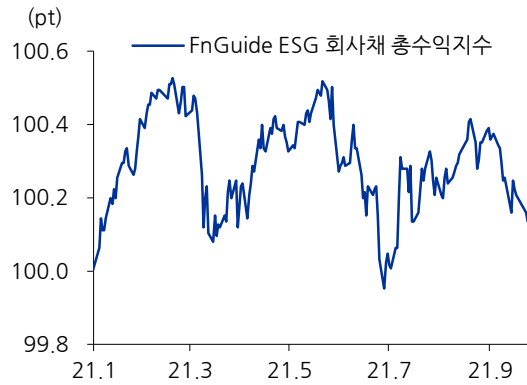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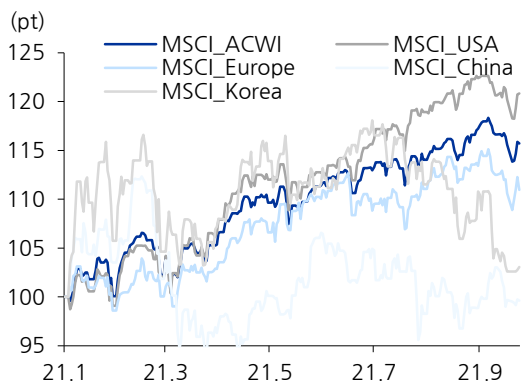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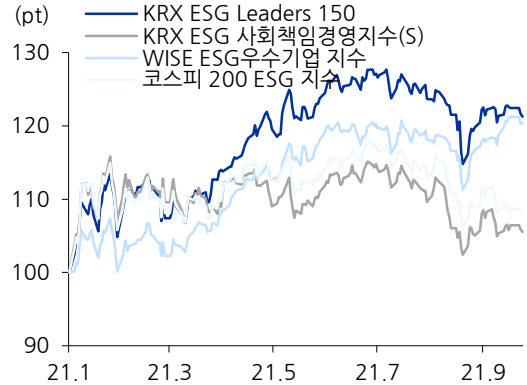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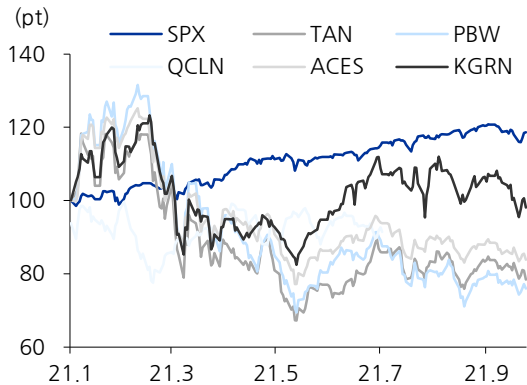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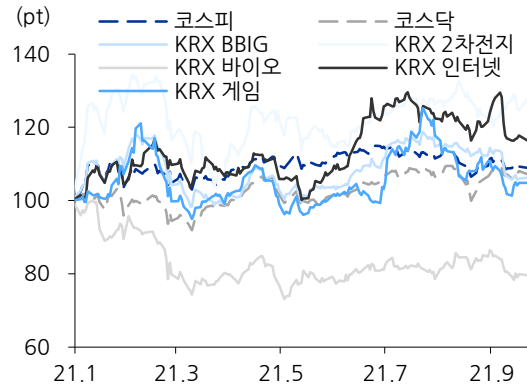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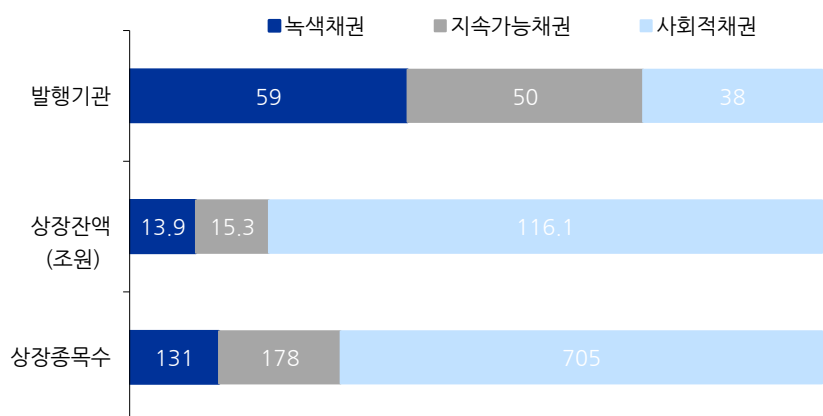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신규 상장된 사회책임투자채권

채권종류	종목명	상장일	표면이자율	상장잔액 (백만)
지속가능채권	삼성카드 2526(지)	2021/09/23	2.09500	20,000
지속가능채권	삼성카드 2527(지)	2021/09/23	2.24100	30,000
지속가능채권	삼성카드 2528(지)	2021/09/23	2.28900	50,000
사회적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741(사)	2021/09/23	1.93000	280,000
사회적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742(사)	2021/09/23	2.02400	90,000
녹색채권	쌍용씨앤이 316-1(녹)	2021/09/16	2.23800	30,000
지속가능채권	POSCO311-2(지)	2021/09/16	2.00700	200,000
사회적채권	한국장학재단 21-9(사)	2021/09/16	1.50100	30,000
녹색채권	두산퓨얼셀 2(녹)	2021/09/16	3.81000	75,000
녹색채권	지에스이피에스 18-1(녹)	2021/09/15	1.92500	50,000
녹색채권	지에스이피에스 18-2(녹)	2021/09/15	2.24000	8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57(사)	2021/09/15	1.53300	140,000
지속가능채권	롯데건설 136-2(지)	2021/09/14	2.21400	40,000
지속가능채권	롯데캐피탈 421-3(지)	2021/09/14	2.11900	50,000
지속가능채권	롯데캐피탈 421-4(지)	2021/09/14	2.28700	10,000
녹색채권	엘지디스플레이 43-1(녹)	2021/09/14	2.29200	290,000
녹색채권	엘지디스플레이 43-2(녹)	2021/09/14	2.79200	210,000
사회적채권	씨제이제일제당 27-3(사)	2021/09/14	2.37400	60,000
사회적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740(사)	2021/09/13	1.92100	210,000

자료: SRibond, 유진투자증권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i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3자로부터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2%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8%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06.30 기준)